

與 ‘정동기 사퇴촉구’ 놓고 자중지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김무성 “부적격 동의 한적 없어”

민주, 靑 책임자 문책 요구… 정동기 “하루 더 생각”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전날 결정에 대해 일부 지도부 인사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11일 한나라당 내에는 자중지란이 일었다.

중국 출장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급거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떠나 이런 중요한 문제 제기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청은 같은 식구로 내밀히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는 게 예의”라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원희목 비서실장이 이렇게 결정이 돼가고 있어 예의상 연락하는 것이라고 통보를 했으나 나한테 동의를 얻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해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데 안 됐다”고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청와대와 사정에 한 번의 통화도 없었다”며 “당의 체면을 세우는 것도 좋지,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어제 결정 내용을 통보했고 김 원내대표는 당시 ‘알았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김 원내대표가 어제 당의 결정에 대해선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더 이

상의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사퇴촉구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여론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중국 출장을 갔던 김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결정과정을 놓고 뒤늦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원내대표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일부 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언제 당과 사전조율했는가. 청와대의 대응이 미숙하다”며 물려서지 않았다.

소장과 수장적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의 ‘부적격’ 결정은)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겠다는 지난 전당대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상적이지 못했던 당정관계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분을 겪는 한나라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날 이번 인사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전직 경찰청장과 청와대 감찰팀장이 연루된 ‘함바 비리’와 연계시키는 등 공세의 초점을 청와대로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가 빨리 사퇴를 해 대통령 명에도 청고 본인의 명예도 살리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번만은 청와대가 인사검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 부법무공단으로 출근한 뒤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 책임을 감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 중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던 당초 관측과는 달리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효석 “대통령 무관심이 구제역 재앙 불러”

“현 상황 국가 위기 인식해야”

민주당 김효석 의원(당양·곡성·구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파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소와 돼지가 130만 마리를 넘었지만 아직까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토양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제역 재앙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관심과 안이한 대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하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 살처분 된 소와 돼지는 2216두에 그쳤다”며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축



산 농민의 비명이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일에는 긴급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이 같은 무관심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불렀다”며 “지난해 12월 15일과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 방제 위기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규정 등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29일에는 뒤늦게 최고 등급으로 격상, 결국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구

제역 재앙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데도 지난 8일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한가하게 뮤지컬을 관람, 축산 농민들은 물론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에 이어 AI(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까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전쟁 상태의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상대책회의를 매일 개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방제에 지친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축산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구제역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제안에

민주, “먹을 것으로 장난치냐” 비난

민주당은 11일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먹을 것으로 장난치냐”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박지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평

가를 받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투표하려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보면 검토해볼 만하다”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야비하고 치사하다”며 “하악한 대선지도를

을 높이기 위해 무상급식을 도구로 쓰는 오 시장의 참으로 치사한 정치가 끝을 모르고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훈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패스기가 지나치다”며 “왜 국민이 오 시장에게 ‘다섯 살 훈이’라는 별명을 붙였는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한 대응은 진보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촉발돼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루만에 목소리 낮춘 안상수

당·청 갈등 의식 기자회견서 “정부 정책 협조할 것”

전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11일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우리 당은 정부의 정책에 잘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국민여론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당·청 간 협조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일로 인한 당·청 간 갈등을 의식한 듯 안 대표는 당초 기자회견 초안 문구에 포함돼있던 ‘불가피할 경우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안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견제 문구 삭제 이유에 대해 “당·청이 협의해서 잘 해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문구 삭제는 당·청 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날 당·청 간 불협화음에 대한 김무성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안 대표가 갑자기 톤을 낮췄다는 것이 정처권의 일관적 분석이다.

안 대표는 반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의 복지정책을 겨냥해 “고소득층 정·청이 협의해서 잘 해낼 것”이라며



서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 삼권분립의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 석

폐를 등 선거제도 등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원경찰 입법로비’ 연루

국회의원 6명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환)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날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2009년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당 3월 12일

경남 김해서 전당대회

국민참여당은 10일 마포 중앙당사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3월12일 경남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기로 결정했다.

참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김해 읍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 있는 곳”이라며 “4·27 재보선의 중요성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임을 고려, 대회를 김해에서 개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 대표로는 이재정 현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통합 진보정당 만들 것”

민노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1일 “올해 상반기 내 범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통합 진보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등과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추진하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지난해 통합추진기구를 의결했고 이에 따른 집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 “분열의 상처를 넘어 힘을 있는 통합 진보정당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겠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재보선과 관련,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실질적인 연대기구인 ‘반(反)MB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해서 혜택 누리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뺄지는 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찰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감촉 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색지니 끝까지 생신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별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라 인기폭발로 불려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간·주말반 전여성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로 보강 혜택 2개월 15만원
www.egos.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업·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문학박사, 윤종하(전)풍관원, 초대농공사업회장, 송승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송승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학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2011년 시험대비
공인중개사 시험**
개강 1월 10일 (월) 상담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전남고시에서 수강하시면
1.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주·야수강가능)
2. 연회원 수강료 특별할인
3. 교재 무료 제공(12권 180,000원)
4. 동영상제공
5. 독서실, 사물함 무료이용
국비지원 수강가능!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22-5105